

이상룡, 이해련 기도편지 (2020년 12월 11일)

오늘은 아내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강점과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아날로그적인 아내는 손으로 하는 일 즉 요리, 베이킹, 바느질, 뜨게질, 그림, 실내장식 등의 가사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반면, 디지털적이거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우고 익히는 데는 아주 자신 없어 하는 편입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운전입니다.

사실 25년 전 안식년으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처음으로 운전을 시도했지만, 시험 치는 날, 바로 앞에 시험 본 사람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내린 것을 모르고 출발하려다 시간경과로 시험에 떨어졌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이 후 아내는 운전은 아예 포기하고, 마치 '운전도 못하는 장애인'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아내는 악몽을 꾸며 한밤 중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깨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얘기를 나누던 중 혹시 그 원인이 운전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 가는데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최소한 운전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이 아내의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이 문제를 고민만 하지 말고 부담감을 주는 문제들을 하나씩 줄여 나가자는 생각으로 비록 늦은 나이지만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연장되면서 일단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1000개의 예상문제들이 잘 외워지지 않자 아내는 꼼꼼하게 요약정리까지 하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의외로 높은 점수로 필기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장내기능시험도 만만치 않았지만 은혜로 100점을 맞고 합격했고, 마지막 도로주행은 정말 자신이 없어서 네 개의 코스를 직접 발로 걸어보며 도로와 지형지물을 눈으로 익히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붙으면 하나님 은혜요, 떨어지면 실력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며 지난 달 주행시험을 보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고 아내는 오랜 숙원이던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또 한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역 컨설턴트(자문위원)가 되려면 번역에 경험도 있어야 하고, 선배 컨설턴트의 지도 하에 실습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번역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지만, 아내는 2018년에서야 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한 달 간의 기초훈련을 받았고, 신학교 교육도 요구되기에 네팔에 있는 동안 틈틈이 현지신학교에서 청강으로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총 네 번의 실습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 세번째 실습을 지난 주간에 온라인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한번 더 실습하면 컨설턴트 자격을 얻게 됩니다. 평소에 컴퓨터에 자신 없어 하는 아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인내로 감당해 온 이유는 곧 시작될 세르파 구약성경 번역에서 세르파 언어를 잘 아는 저희 두 사람이 컨설턴트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구약을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기 싫어하고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분의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남은 실습도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이야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남아공에서 사전학 공부를 하던 중 미국 버클리 대학의 저명한 여자 교수(Sarah Thomason)가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분의 이론은 “여러가지 방언이 있는 언어는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표준어로 선택되지 되지 못한 방언들은 소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제작에서 ‘부추’라는 단어가 표준어로 선택되면 경상도에서 사용하는 ‘정구지’와 충청도의 ‘졸’과 전라도의 ‘술’이라는 사투리단어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사전 편집과정에서 한 가지 방언을 표준말을 선택하지 않고는 사전작업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방언의 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말로 선택되지 않은 사투리들도 함께 참고어로 사전에 신는다면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이론에 입각해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그 분의 이론에 대한 반박논문을 쓰고 그 내용을 2017년 네팔 언어학회에 발표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소논문은 언어학회의 연례 학회지에는 실리지 못했고 지난 몇 년 동안 저의 컴퓨터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우연히 그 논문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토마스 교수에게 제 논문을 한 번 읽어봐 달라고 보냈습니다. 생면부지의 유명교수가 제 논문을 읽을 것이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답장이 왔습니다. 제 논지에 여전히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년 대학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읽어야 하는 참고자료로 제 논문을 사용해도 되겠는가 하고 물어 왔습니다. 물론 저의 대답은 “예, 그럼요!”였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도하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다사 다난했던 한 해’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올해는 진짜로 다사 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귀한 연말 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상룡, 이해련 드림 (010-7236-7458, 010-2027-7458)